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영적 투쟁의 정당한 결과로 받아들인 죽음, 순교

우리나라 천주교 신앙공동체는 조선시대에 학문으로 시작되어 자생적으로 생겼으나,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다. 박해의 시발점은 각 사건마다 다르지만, 그 목적은 천주교를 말살하려는 것이었다.

천주교를 말살하려는 이유는 사상적, 사회적, 정치적인 이유로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유교의 양반사상과 천주교 평등사상의 충돌, 전통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위협하는 조상 제사의 거부로 인한 충돌은 정치인들에게 박해의 명분을 제공하였다. 이에 천주교를 신봉하는 남인 시파와 북인 벽파 간의 당파싸움은 고조되었고, 천주교인들은 정치인들의 논리에 휘말려 희생되어야 했다.

천주교를 말살하려는 박해는 사상적, 사회적, 정치적 권력과 대립하거나 저항하는 모양으로 일어났다. 예수를 믿고 따르려는 순수한 동기가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속적인 지배 이념이 하느님 나라의 다스림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충돌의 끝은 신자들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조선 정부에서 바라본 천주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이었다. 모든 인간의 평등을 내세우며 들어온 천주교는 지배계층에게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위협적인 요소였다. 로마인들에게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예수님이 범죄자로 인식되었듯이, 조선의 지배계층에게도 천주교인은 범죄자였다.

천주교인들의 저항은 지배계층에 대한 정치적 불평을 표출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자신들이 가진 천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노력으로써 저항이었고 그 저항이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천주교인들의 순교는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 아니라 영적인 투쟁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변혁을 일으킨 투쟁이 되었다.

‘오늘날 박해는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순교자들의 순교정신은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필요로 한다. 오늘날의 순교는 하느님 통치에 상반되는 가치관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권위’나 지배계층에 대한 유형무형한 억압에 침묵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와 공정 생명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써 순교정신이 발휘 되어야 하지만,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는 형식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유하는 한에서 오늘날의 순교라고 할 수 있다.

“천주를 믿지 않겠다”라는 말 한마디면 목숨을 지킬 수 있었지만, 순교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영적 투쟁의 정당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손권중 다니엘 신부 | 거제본당 주임



제 1 독 서 지혜 3,1-9
화 답 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 2 독 서 로마 8,31-39
복 음 루카 9,23-26

주일 진레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축복식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창원 유니시티-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릭스 1026호) 축복식이 8월 30일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배 주교는 “교구 내 좋은 자리에 생명운동을 함께할 수 있는 나눔터가 자리하게 되어 기쁘다. 이곳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 나눔에 함께하길 바란다.”며 당부하였다. 우리농 담당자는 가톨릭 우리농 매장이 열리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산청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설치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시편 36,10)

산청성당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성전 내부에 스테인드글라스(색 유리화)를 설치했다. 1965년 12월 20일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된 산청성당은 이듬해 새 성전을 건립하고 한국순교자들을 본당주보로 모시는 순교복자성당으로서 헌당식을 가졌다. 이번 색 유리화의 주제는 ‘박해와 순교’라 할 수 있다. 헌당식을 가진 1966년은 병인박해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여 작가 최재상 마티아 신부(창녕본당 주임)가 박해시대 순교자들 중 교구 내 순교자 여섯 분(신석복 마르코, 구한선 타대오, 박대식 빅토리오, 윤봉문 요셉, 정찬문 안토니오, 서응권 요한)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항해하는 교회, 가시관, 칼枷, 월계관, 하늘을 나는 새 등의 형상은 박해시대 때 순교자들 믿음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신앙의 빛으로 전해지고 있는지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어쭙잖은 나의 기도

이주언 레지나 시인/ 가톨릭 문인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러 다니는 초등생 같다. 남들보다 늦게 입교했음에도 남들보다 나태하다. 해내야 할 일 가득한 일상이라는, 시원찮은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일에 먼저 끌려다닌다. 다행히 레지오에 소속된 덕분에 아침기도는 빠뜨리지 않는 편이다. 처음엔 보고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았으나 점점 자신을 위한 기도로 바뀌는 듯하다. 어쩌다 아침기도를 빠뜨린 날이면 찝찝한 기분이 든다. 의무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율이 되어가는 걸 느낀다.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 보다. 스스로에게 코뚜레를 꿰어놓지 않으면 나태해지는 성향이므로 레지오의 끈을 놓지 않을 생각이다.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즐겁다. 신앙과 종교는 뉘앙스에서 약간 차이가 느껴진다. 신앙이 개인적 믿음과 가까운 것이라면, 종교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의미를 지닌 듯하다. 레지오를 통해 신앙과 종교의 두 관점의 균형을 잘 이루고 싶다. 성전과 멀어지면 신앙이 위태해지고, 종교적 형식이나 인간관계에 휘둘려도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잊기 쉬울 것 같다.

일상생활에서 가끔 “주님, 제 안에 계시지요?”라고 속엿말을 할 때가 있다. 요즘 시대에 신이 진짜로 있다고 믿느냐고 묻는 주변인에게 나는 말한다. 그럼 영적 현상들은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어느 천체물리학자도 처음엔 신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우주를 알아갈수록 미궁에 빠지면서 신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신은 세상의 이치이며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읽거나 주워들은 말로써 답한다. 독서 모임이나 스터디를 하다 보면, 어떤 이는 철학적 사유들과 자신의 종교관을 적절히 조절하며 신앙을 잘 유지한다. 반면에 모태신앙이었던 어떤 이는 대학 시절 철학을 전공하면서 종교를 떠났다고 했다. 나는 전자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모자라고 미숙한 점이 많다.

요즘은 성전에 갈 때마다 레지오 자매를 따라 전대사 기도를 바친다. 기도문 중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라는 로마서 구절이 와닿는다. 늘 무언가를 성취해 주십사 기도하는 습관을 되돌아보게 한다. 로마서에 나오는 ‘환난’이 현대의 환난과 다른 의미이겠지만,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실 때도 환난을 주실 때도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느끼게 한다. 사실 구약성서를 읽으면서 ‘야훼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으실까, 환난과 두려움을 주셔야 사람들이 복종하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품은 적 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의 삶은 기쁨, 행복, 슬픔, 고난, 불행 등 다양한 일상이 어우러져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러므로 환난에 대한 로마서의 이 구절은 많은 위안이 된다. 간절히 기도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과 원망을 가진 적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그러니 주님, 뜻대로 하소서! 저에게 오는 모든 환난이 인내를 통한 수양과 희망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당키 어려운 환난은 내리지 마소서!



“입에서 나오는 것” – 정치적 올바름에 관하여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지평과
초월

레위기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읽기 쉽지 않은 책이다. 문체가 단조롭고 반복적이며 고대의 법률 용어가 계속 등장하는 까닭에 집중이 힘들 뿐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대한 식견이 없이는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2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에서 하느님은 당신이 이 손수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할 규칙과 법규들을 내리신다. 종교의식에 관한 실수, 육체적 부정, 도덕적 불충들이 매우 세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많다. 그러니 레위기를 잘 읽는 방법은 밑줄을 긋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밝혀내는 것이겠다.

레위기는 성성聖性, 즉 ‘거룩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이며, 이 거룩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나 야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레위기 19,2), 즉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하느님과의 관계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각 개인이 하느님과 맺는 관계는 공동체 전체가 이루어야 하는 하느님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까다로운 법규를 볼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뿐 아니라 시대적으로 가까웠던 예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듯하다. 이 정황이 드러나는 구절이 마태오복음 15장의 본문이다.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다짜고짜 예수를 찾아와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즉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따져 묻는 그 구절이다. 그들이 언급한 ‘조상들의 전통’이란 율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후대에 만들어진 시행세칙으로, 많은 부분 레위기의 법 규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나, 소소하게 드러나는 말과 행동거지를 통해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기는 충분했다.

예수는 그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심지어 위선자라고 매우 직설적으로 비판하는데, 내 관심을 끄는 것은 그들이 떠난 후 예수가 남은 이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는 고대의 법전 레위기를 관통하는 메시지, 바로 ‘거룩함’을 다시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가 말한 ‘거룩함’이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하는 삶이다. 이는 그가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말’에 대해 강조한 구절에 잘 드러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15,11)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15,18) 여기서 예수가 사용한 ‘더럽게 하다’는 동사는 그리스어 ‘코이노이 κοινώ’로, “품위를 떨어뜨리다, 저속하게 만들다”란 뜻을 가진 레위기의 성결법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말하자면 인간을 저질스럽게 하는 것은 속마음으로부터 발산되는 행동과 인격이며, 그것이 표현되는 ‘말’이라는 것이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거나 저거나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그가 사용하는 언어다.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말은 약이 되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칼이 되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속사람이 성숙한 이들은 사려 깊은 말로 남을 품는다. 그렇지 못한 이들은 함부로 내뱉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의 관계 또한 흔들어 댈다. 속사람과 겉사람을 조율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상의 행실과 언어로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레위기는 그토록 긴 법규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는 겉사람은 올바르지 모르나 속사람이 썩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무리들이 말로 난도질을 하고 떠난 자리에서 레위기가 가르친 바로 그 거룩함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에 관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 보려 했는데 서론이 길어졌다. “정치적 올바름”, 혹은 ‘피씨political correctness’ 운동은 말의 표현이나 용어 사용에서 성차별, 인종, 민족, 언어, 종교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운동으로, 19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운동이 ‘미투Me Too 운동’ 등을 계기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반응들을 끌어내고 있는데, 공적 영역에서는 미약하나마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사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걸돌며 거부감을 일으키는 모양새다. 정치적 올바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을 싸잡아 ‘프로불편러’라고 부르며 조롱하거나, 이들이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옳음에 대한 강박관념에 빠져 시도 때도 없이 트집을 잡는다고 비난하는 이들도 보았다. 누군가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집착이 ‘더 중요한’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 운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 운동이 공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상호 비판의 자유를 박탈해 서로 성장할 기회를 억누르고 있다고 묵직한 비판을 하기도 한다.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한 교회에서는 더욱더 자리 잡기 힘든 듯하다. 수궁이 된다. 나 또한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한마디 했다가 괜히 분위기 험악해지고 말한 이와 관계가 틀어질 것이 걱정되어 입을 다물었던 경험이 많다.



이런저런 비판과 우려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신앙인이란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를 단지 정치적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룩함’, 즉 하느님을 닮는 삶, 하느님과의 통교를 이루어 가는 나와 공동체의 실천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말을 통해 내뱉는 차별이 당하는 이의 입장에서 말 못 할 상처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 때로 그 상처는 내성이 되어 스스로의 성장과 도약을 포기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하느님께서도 상처받으실 일이다. 나는 “정치적 올바름”을 사회적 운동이라기보다 나를 바꾸어 내는 일상의 훈련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이에게 틀렸다고 언질을 주기보다 나 스스로를 바꾸어 내기 위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조심한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혐오 표현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당신의 거룩함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일 름



기억할 선종 사제

김두호(알로이시오) 몬시뇰

1993년 9월 26일



교구장 동정

그라츠 자매결연 50주년 기념 행사

일시: 9월 25일(토) 10:3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교구/본당

그라츠 자매결연 50주년 기념 행사

일시: 9월 25일(토) 10:30

장소: 양덕동성당

52차 선택주말

일시: 10월 16일(토)~17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2~30대 미혼 남녀 누구나

(46차<2016년 11월> 이전 참가자 재신청 가능)

참가비: 6만 원

준비물: 미사준비, 필기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개인컵 등

신청: 9월 23일(목)까지

문의: 장혜민 리마 010-4288-2698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9월 기도모임

일시: 9월 27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기 타

가톨릭상지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접수: 9월 10일(금)~10월 4일(월)

문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제31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공모

부문: 1)신문, 출판/ 2)영화, TV/

3)라디오, 인터넷/ 4)교구, 수도회

대상: 2020년 11월 1일~2021년 10월 15일 사이 발표된 작품

접수: 10월 15일(금)까지 우편,

메일(mscm@cbck.kr) 접수

문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02-460-7626/ <http://www.cbck.or.kr> 참조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코로나19 외국인주민 통역 서비스

교구 내 외국인주민의 코로나 확진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일터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언어 소통으로 인해 선제검사나 백신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미등록 외국인포함)들을 위해 나라별 통역사를 채용하여 코로나19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외에도 본당 내 외국인주민들과 기업체 외국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창원이주민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가능언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인도어, 터키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테툼어)

문의: 교구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마산교구 법원 이용 안내

혼인과 관련된 일들로 성사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하십시오.

“교구 법원은 신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010-7123-4506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Viriditas “생명을 주는 푸르름” 성녀 힐데갈드
힐데갈드 화장품
힐데크림 힐데샴푸
힐데스킨 EM힐데비누
문의·주문 0502-700-1140
대표 이정순 힐데 수녀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일 름

그라츠-섹카우교구 자매결연50주년 기념행사



1971년부터 마산교구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오스트리아 그라츠-섹카우교구와의 자매결연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이 행사와 그라츠교구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21년 9월 25일(토) 10:3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내용 · 감사미사/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집전
· 『그라츠-섹카우교구와 동행 50년』 출판기념회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가인원 수를 제한함으로 9월 1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구청 사무처 055.249.7016

제15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목)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인간을 위한 순교-김은국의 『순교자』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순교자』는 재미작가 김은국의 대표작으로 애초 영어로 발표되었다가 이후에 한국어로 번역된 특이한 이력을 지닌 작품이다. 6.25 전쟁 중 평양을 배경으로 비극적 사건을 통해 신앙의 문제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한국 전쟁 중 ‘나’ 이 대위는 한 목사와 신 목사라는 사람을 조사하라는 장 대령의 지시를 받는다. 그들은 전쟁 초기 있었던 북한군의 목사 학살 사건에서 14인의 목사 중 살아남은 두 사람이다. 나는 그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두 목사를 찾아가지만 한 목사는 미쳐 있고 신 목사는 끝내 침묵할 뿐이다.

그러던 중 처형 사건에 연루된 북한군 소좌를 체포하게 된다. 그로부터 알게 된 진실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목사들의 대부분이 서로 배신하고 살려 달라고 개처럼 빌빌렸으며 하느님의 이름을 모욕하여 죽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상황이 바뀌어 두 목사는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장 대령은 그 진실을 외면하고자 한다. 북한군의 만행을 선전하기 위해서 12명의 목사는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진실을 두고 인물들의 생각이 얽히며 작품은 참된 신앙의 의미를 묻기 시작한다.

처형된 목사 중 박 목사가 있었다. 그는 나의 친구인 박 대위의 아버지이다. 박 목사는 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의 세계만 바라보는 ‘광신도’였다. 그런 아버지와 교감하지 못하였던 박 대위는 나에게 말한다. “내가 알고 싶은 건 하나뿐이야. 죽음을 앞둔 그 최후의 순간에 그가 결국 나하고 나누어 가질 만한 어떤 공통된 그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 말일세.”

그리고 마지막 순간 참혹한 인간 세계를 목격한 박 목사는 처형의 순간 “난 기도할 수 없어!”라며 기도를 거부하고 만다. 고통 속에 인간을 버려두는 신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중에는 죽어가는 자들이 신음하며 다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 하시느니라. -『요기』 24장 12절

어느 날 신 목사는 교회에 나타난다. 그는 군중 앞에서 스스로 배신자라 고백하며 12명의 목사들이 회유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며 죽어 갔다고 증언한다. 그러자 군중들은 ‘순교자’들을 찬양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애초에 그는 목사들의 죽음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번에는 그들의 죽음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다. 종교의 위엄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 대령처럼 북한군의 만행을 선전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오직 고통받고 지친 대중들에게 위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기꺼이 죄의 십자가를 지기로 한 것이다.

“날 좀 도와주시오, 불쌍한 내 교인들, 전쟁과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 그리고 삶의 피곤에 시달리는 이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아름다운 죄라는 역설적인 말이 있다. 신 목사가 그랬다. 고통받는 타인을 위해 스스로 죄에 몸을 던지는 것-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고귀한 순교가 아닐까.